



1 '산수짜리'서 만나는 임수범 작가 작품.
2 '산수짜리'를 운영하는 김민지(왼쪽), 김한라 씨
3 광주극장 옆 영화골목에 문을 연 대안공간 '산수짜리'에서는 '진정성 해방'전이 열리고 있다.

“젊은 예술가들과 ‘재밌는 공간’ 만들고 싶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지역 문화계에 신선한 기운을 전하는 젊은 기획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청년 독립큐레이터를 역시 '자신만의 시각'이 담긴 기획전으로 미술계에 세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19년 산수시장 빈 점포에 문을 열었던 대안 공간 '산수짜리'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젊은 독립큐레이터 김민지(31)씨가 중심이 돼 운영 중인 '산수짜리'는 청년 큐레이터들의 다양한 실험공간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번에 '산수짜리'가 동지기를 틈 곳은 광주극장 옆 영화골목이다. 지난해 조성된 영화골목에는 동네 서점 '소년의 서'와 '영화의 집'이 자리하고 있고, 또 다른 대안공간도 문을 열 예정으로 있어 '문화가 흐르는 골목'으로 자리잡을 듯하다.

답쟁이 덩굴이 감긴 낡은 2층 건물 1층에 동지기를 틈 '산수짜리' (광주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8-8)는 다채로운 문화활동이 펼쳐지는 대안예술공간이다. 40평 규모의 전시장은 오래된 공간의 느낌을 그대로 살렸다. 화이트 큐브 형태의 갤러리 대신 따뜻한 느낌의 나무로 벽을 만들었고 짐을 쌓아두던 계단 아래 작은 창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등 건물 구석구석을 자연스레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특이한 공간 구조를 잘 활용해 재미있는 전시 등을 해볼 생각이다.

김 대표는 이번에 '산수짜리'를 오픈하면서 다양한 실험이 이뤄지는 장소로 운영하되, 시각예술 전문 공간으로 정체성을 확실히 했다. 또 공예가 김한라(31)씨도 새롭게 스텝으로 참여해 다채로운 기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대에서 미술이론을 공부한 김 대표는 '공간'에 관심이 많다. 광주시립미술관 국제교류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선정돼 3개월간 대만에 머물 때도 예술공간 리서치와 예술 생태계를 알아가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느꼈어요. 제가 구현하고 싶은 전시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들 말이죠. 저와 같은 고민을하는 이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019년 동구청의 청년창업자 지원을 받아 '산수짜리'를 연 이유입니다."

사실, 김대표는 이번에 공간을 새롭게 준비하며 '고민'이 많았다. 아르크 시각예술창작 비영리 공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는 했지만 '지속가능한 공간'을 계속 운영하는 건 힘들다는 걸 알기에 잠시 망설이기도 했다.

"2년 정도 산수짜리 활동을 하면서 공간을 계속 운영하는 데 대해 확신이 없기도 했어요. 하지만 독립기획자로서 활동하려면 기반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기에 힘을 냈습니다. 예술하는 친구들이 서울로 많이 떠나는 상황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과 방향을 모색해 보고 싶기도 했어요. 조금은 불안정하고 무모하더라도 같은 생각을 나누는 또래들, 후배들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 공간에서 거창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할 수 있는 '거리'를 꾸준히 만들어보려고요."

'진정성 해방'을 주제로 현재 열리고 있는 '산수'

독립큐레이터 김민지·김한라 씨
충장로 영화골목 '산수짜리' 오픈
정덕용·하도훈 등 17~20일 전시

짜리 재·개관 기념전' (3~20일·목·일·오후2시~7시)에는 김은경·정덕용·임수범·하도훈 등 4명의 청년 작가를 초청했다. 김은경 작가는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작은 창고 안에 작품을 설치하는 등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작품을 전시 중이다. 큐레이터와 작가가 '함께' 만들어간 이번 전시는 작품과 함께 작가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도 젊은 작가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산수동 시절부터 진행했던 '큐레토 리얼리즘' 시리즈는 올해도 계속된다. 비평 세미나 등을 통해 함께 공부한 후 자신만의 전시를 구현해보는 기획이다. 6월중 2명의 기획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결과물 책자 발간과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대관도 진행한다.

'산수짜리'는 하반기부터는 공간이 자리한 영화골목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구청 골목 로컬랩 사업도 진행한다. 현재 공사중인 또 다른 대안공간과 영화의 집, 산수짜리, 소년의 서 등 골목길에 자리한 문화공간들이 함께 하는 기획이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미디어아트 콘텐츠 공모-회복’

광주문화재단 18일까지 접수... ‘스페이스5G네’ 이벤트도

광주문화재단은 '2021 미디어아트 콘텐츠 공모-Recovery(회복)'를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공모는 스페이스5G네를 비롯해 홀로그램 극장, 미디어놀이터 등 미디어아트 특화공간과 광주공원 일대를 공간적으로 변형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분야는 플랫폼 계단에 적용 가능한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미디어아트 특화공간과 스페이스5G네 공간을 활용한 'AR, VR, 인터랙션 활용 콘텐츠', 광주공원 일대와 미디어 특화공간에 설치할 빛 관련 '외부 설치 콘텐츠', 홀로그램 극장을 활용한 '홀로그램 콘텐츠' 등 4분야이다.

선발된 창작자들에게는 총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예산이 작품 제작비로 지원된다. 단 '문화융·복합 콘텐츠 개발 기획단' 자문회의에 참여해야 하고 2021년 9월 3일까지 1차 쇼케이스가 가능해야 한다. 최종제출일은 11월 3일이다.

한편 문화재단은 5G미디어실증체험관 '스페이스5G네'에서 '내가 그린 거북이' 체험 콘텐츠에 그림을 그린 후 사진 촬영(1단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스페이스5G 등 4가지 해시태그를 포함해 업로드(2단계), 결과물 직원에게 보여주(3단계), 이벤트 선물받기(4단계) 등으로 진행된 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스페이스5G네의 '네모네모 체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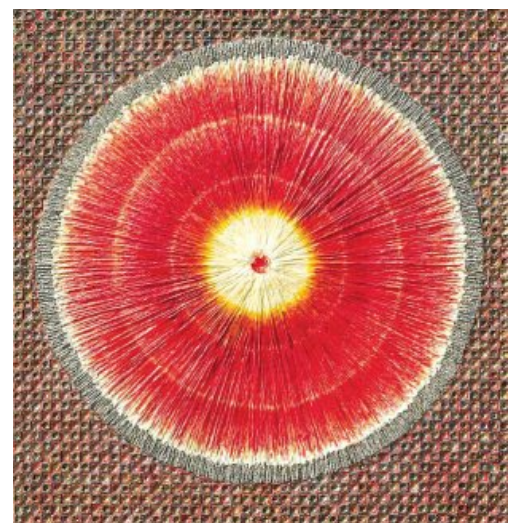
서예와 회화가 만나다

허희태 개인전, 16일~29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이즈

전통 서예를 회화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해온 허희태 작가 개인전이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열린다. '헤어림의 꽃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2019년부터 작업해온 신작 34점을 선보인다. 서예에 회화적 요소를 가미한 '이모그래피(Emography)' 장르를 창시해 작업해온 허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평면을 벗어나 입체 조각으로 작업을 확장한 '이모스컬프처(Emo Sculpture)'라는 또 다른 장르의 작품을 전시한다.

기존의 작품이 철학적 메시지와 인간사 회로에 락을 한 번의 찰나적인 붓질로 표현했다면 이번엔 전시하는 '생명의 울림' 시리즈 등 조형회화와 설치 작품들은 입체성을 강화해 무한 공간의 에너지와 생명의 원초성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작품 주제는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로 현대인에게 필요한 사유와 명상의 세계를 다채롭게 표현했다. 허 작가는 "그동안 서예로부터 출발해 이모그래피와 회화, 조각설치로 영역을 확장해왔다"며 "근래 생명과 존재의 근원에 대한 탐색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속에서 얻은 성취가 작품이 됐다"고 말한다.



'심장의 울림'

순천 출신인 허 작가는 상명대 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했으며 현재 부산서예이모그래피 연구원장, 연세대 미술대학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과 미국, 스웨덴 등에서 순회전을 개최했으며 국내에서도 20여회 개인전을 열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쌍화다방 광주폴리와 먹거리의 만남



15~19일 산수동 '콩집'

광주 폴리와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가 만났다.

(재)광주비엔날레가 광주폴리III 쿡폴리에서 팝업스토어 '쌍화다방'을 운영한다. '쌍화다방'은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 위로를 전하기 위해 로컬브랜드 '천천히방앗간'과 광주폴리가 함께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15일부터 19일(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광주 산수동 광주폴리III 쿡폴리 작품 '콩집'에서 열린다. 광주폴리III 쿡폴리의 또 다른 작품이자 한식당으로 운영 중인 '정미장' 이용 인증을 하거나 광주폴리와 천천히방앗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모두 팔로우 인증하면 쌍화다방 시그니처 메뉴 무료이용권을 증정한다.

시그니처 메뉴는 아이스 쌍화, 쌍화라떼, 쌍화빙수 3가지다. 무료이용권으로 음료는 1인 1메뉴, 빙수는 2인 1그릇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하루 60명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일반 커피 메뉴도 준비돼 있으며 천천히 방앗간 제품도 특가로 구매가능하다.

한편 광주폴리투어도 철저한 방역 수칙 아래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시민연대-민변 광주전남지부

‘5·18 작품 훼손 조사단’ 구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착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정희)는 '아시아문화원 검열·작품 훼손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단(이하 공동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번 논란이 벌어진 이후 보여준 아시아문화원과 광산구청의 태도에서 진실이 규명되기 어렵다고 판단, 민변 광주전남지부에 제안해 공동 조사단 구성을 합의했다.

공동 조사단은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단장을 맡았으며 아시아문화원장, 광산구청장을 만나 진실 규명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고 진실규명·재발 방지대책·근본적인 대안 제시 등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해 2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1주년 특별전 '역사의 피뢰침, 윤상원'을 앞두고 주관처인 아시아문화원이 작품 속 '전두환을 찌' 문구를 삭제한 채 포스터를 제작해 ACC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